



# 세익스피어와 민주주의

박홍규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세익스피어는 자유가 억압된 불평등한 봉건사회에서 최소한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민중들을 철저히 경계했다. 주인에게 반항적인 하인, 집단으로 권력에 저항하는 민중은 그의 작품에서 철저히 매도당한다.

## 크로스비의 세익스피어

올해는 세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이다. 그래서 영국은 물론 범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기념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세익스피어의 사상, 특히 정치사상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지금도 찾아보기 어렵다. 거의 유일한 논의가 어니스트 크로스비라는 미국 법률가에 의한 것이다. 인터넷에서 한글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1856년에 태어나 1907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의 생존 당시는 물론이고, 사후 1세기가 넘는 지금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으로 유명하다. 1889년부터 5년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판사를 역임한 이색 경력을 지니기도 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에 외국인 법률가가 한국에 와서 서양법 계수 작업을 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되겠다.

크로스비는 법률가이면서도 톨스토이와 카펜터 등 예술가에 대한 책을 많이 썼다는 점에서도 독특한 인물이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죽기 직전에 쓴 세익스피어 작품의 반(反)민주주의를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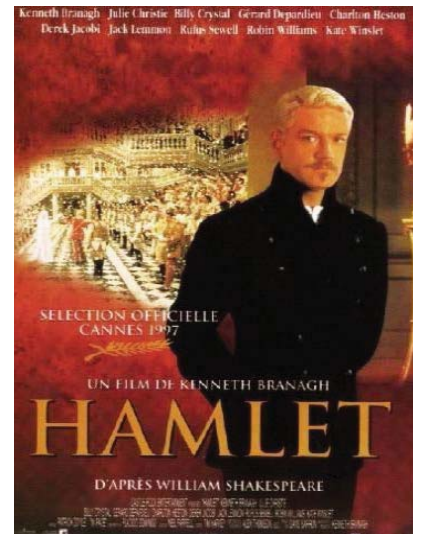
히 비판한 『노동계급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태도』이다. 이 글의 요지는 셰익스피어가 그의 모든 작품에서 왕과 귀족을 끝없이 찬양한 반면 민중은 철저히 모멸했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민중을 향한 온갖 욕설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우리에게 그 점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채 셰익스피어는 고상한 예술작품의 대표 격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 당대에는 물론 지금도 서양에서 그의 연극은 TV 드라마와 같은 대중예술로 인식되고 있다. 셰익스피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먼저 이 점에서 서양과 차이가 있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제목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대부분 왕(가령 ‘리어’나 ‘맥베스’)이나 왕자(‘햄릿’) 또는 장군(‘오셀로’)의 이름이다. 사랑의 대명사인 ‘로미오와 줄리엣’도 귀족의 자녀들이다. 다른 작품의 주인공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민중은 주연은커녕 조연도 아닌 엑스트라 수준으로 등장하고 그마저 대부분 비뚤어진 성격의 형편없는 인간들로 묘사된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민중은 『헨리 6세』에 나오는 잔 다르크 정도인데 그녀도 경멸을 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녀가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대접받지 못한 이유는 영국의 적인 프랑스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이 아니라, 농사꾼의 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만약 그녀가 오필리어처럼 귀족의 딸이었다면 보다 긍정적으로 표현되었을지도 모른다.

『헨리 6세』에는 잔 다르크 스스로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개탄하며 양치기인 아버지를 “늙은 구두쇠! 천하디 천한 몹쓸 노인네!”라고 욕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처럼 셰익스피어는 잔 다르크를 불효녀로 만들뿐 아니라 지배계급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일 정도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셰익스피어는 지배계급에 철저히 복종하는 민중에 대해서만 대우하는 태도를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천한 존재로 다루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자유가 억압된 불평등한 봉건사회에서 최소한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민중들을 철저히 경계했다. 주인에



영화 <햄릿(1996년작)>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http://movie.naver.com>)]

게 반항적인 하인, 집단으로 권력에 저항하는 민중은 그의 작품에서 철저히 매도당한다. 셰익스피어가 군주주의자이자 귀족주의자로서 민주주의에 반대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크로스비가 인용한 셰익스피어 희곡의 수많은 대사들을 되풀이할 필요도 없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보거나 읽거나, 영화로라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반민주적인 태도인데도, 그 점을 언급하면 이상하게도 화부터 내며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 중에는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16,17세기는 군주의 시대이고 모두가 군주주의자였으니 셰익스피어만을 비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당대에도 셰익스피어와는 다르게 민중을 긍정적으로 그린 작품을 쓰거나 민중의 자유와 평등을 기원한 사람들이 많았다. 지배자가 없는 『유토피아』를 그린 토머스 모어나, 『에세』를 쓴 몽테뉴,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계급을 초월한 작품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 등이 그 예다. 심지어 『군주론』의 마키아벨리도 시민정치를 옹호했다.

토머스 모어는 왕 바로 다음의 권력자였지만 노동자를 신뢰했고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인식했다. 그리고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을 부정하며 유토피아를 꿈꿨다. 그러나 지배자가 없는 세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셰익스피어는 마지막 작품 『태풍』에서 모어의 유토피아를 야유했다. 『태풍』의 해당 부분을 두고 셰익스피어가 유토피아주의자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셰익스피어와 가장 대조적인 작가는 세르반테스라 할 수 있다. 몰락한 귀족인 돈키호테도 그렇지만, 그의 하인으로 나오는 산초 판자야말로 르네상스 문학에서 창조된 가장 위대한 민중상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에게는 그런 민중에 대한 애정이 결여되어 있다. 절대적 신앙이나 지배자를 거부하는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음에도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한 르네상스 정신과는 상충되는 인물이었다. 특히 셰익스피어를 뒤이은 크롬웰을 비롯한 영국 민주주의 개척자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이 크로스비가 비판한 셰익스피어의 반(反)민주주의다.

## 톨스토이의 셰익스피어

크로스비의 생애에서 흥미로운 점은 1894년 이집트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러시아에 들러 톨스토이를 만났을 정도로 톨스토이에 심취했었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카추샤의 재판을 다룬 『부활』을 읽고 톨스토이를 존경하게 되었다는 법률가를 본 적이 있는데, 크로스비는 『부활』이 발표된 1899년보다 이른 시기부터 톨스토이주의자였다. 크로스비는 톨스토이가 살았던 러시아의 재판 제도는 물론 미국의 사법제도, 특히 사형제도에 비판적이었다. 또, 톨스토이가 『부활』을 쓴 이유가 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크로스비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보

다 1세기 이상 앞선 시기였다는 것이다.

크로스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톨스토이와 의견을 함께 했다. 앞에서 본 크로스비의 글은 톨스토이가 『셰익스피어와 연극』이라는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고, 톨스토이의 글은 크로스비의 글의 서문으로 발표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톨스토이가 죽기 직전인 1903년부터 1906년 사이, 즉 75세부터 78세 사이에 셰익스피어의 희곡과 연극을 되풀이하여 읽고 본 뒤에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 쓴 그 글은 그의 『예술이란 무엇인가?』와 함께 톨스토이 예술론의 백미로 꼽을 수 있다. 셰익스피어 전문가는 물론 톨스토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도덕주의라는 비난을 받으며 곧잘 무시되는 글이지만, 필자는 그 글이 셰익스피어에 대해 최고로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톨스토이는 먼저 셰익스피어 작품을 50년 이상 읽었지만 언제나 혐오감과 따분함과 당혹감만을 주었다고 하면서 셰익스피어 작품 중 걸작으로 꼽히는 『리어 왕』을 분석한다. 『리어 왕』은 본래 사악한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왕인 아버지에게 아첨하여 유산을 많이 받게 되지만, 왕이 아끼던 셋째 딸은 왕을 칭송하지 않아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에서 출발한다. 톨스토이는 평생을 함께 산 딸들에 대해 이러한 태도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는 등 『리어 왕』의 전체 스토리가 얼마나 황당하고 시대적 고증이 빈약한지를 논한다. 또,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과장되고 공허하며, 감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장광설을 구사하여 ‘언어의 무절제’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비판한다. 톨스토이는 셰익스피어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주제와 내용, 즉 반(反)민주주의에 있다고 지적한다. 셰익스피어는 기성의 질서에서 벗어나려 하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을 끔찍하게 여기고 거부한다. 그에게 재산, 가족, 국가는 신성한 것이지만,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려는 포부는 인간 세상에 악몽을 초래하는 광기일 뿐이다. 이처럼 톨스토이의 견해는 앞에서 본 크로스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톨스토이는 여기에 덧붙여 셰익스피어가 기성 질서 중에서도 애국주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즉 신성불가침한 영국의 왕권,

톨스토이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비판은 도덕성의  
결여, 천박함,  
영성한 플롯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Gustav pope, '리어왕의 딸들'  
[출처: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King\\_Lear](https://en.wikipedia.org/wiki/King_Lear))]



적군인 프랑스군 수천 명을 죽이면서도 거의 피해를 입지 않는 영국군, 마녀로 간주되는 잔 다르크 등으로 표현되는 소비니즘에 대한 비판이다. 왕족이나 귀족의 외면적 상승은 탁월함으로 간주되고, 노동자 계층은 경멸당하며, 기존 질서의 개선을 지향하는 모든 종교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분투는 인정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종교적’이라는 것은 원시 기독교의 반국가적이고 반권력적인 진보를 뜻한다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셰익스피어가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벤 존슨 등 당대 작가들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나 19세기 독일에서 재평가되어 그 명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그 주역은 괴테였는데 프랑스 예술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대신 자기 작품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특히 자신의 인생관이 셰익스피어와 일치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를 위대한 시인으로 칭송하였다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비판은 도덕성의 결여, 천박함, 영성한 플롯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와 같은 영국인인 조지 오웰은 톨스토이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비판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가령 『캔터베리 이야기』를 쓴 초서나 『데카메론』을 쓴 보카치오보다는 도덕적이라고 평한다. 이 점에 대한 오웰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톨스토이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어렵다. 오웰은 괴테 등으로 인해 셰익스피어가 유명해졌다는 톨스토이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세기 내내 독일에서 셰익스피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괴테를 비롯한 많은 독일 문인들이 셰익스피어에 대해 극찬한 글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당시 셰익스피어 작품에 의거해 프랑스의 의고주의 비극을 기피하고 시민극을 지향하는 작품들이 집필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오웰이 톨스토이의 주장을 비판한 것 중 유일하게 인정할만한 점은 셰익스피어의 인기가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톨스토이가 죽고 난 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톨스토이보다는 셰익스피어가 대중에게 더 유명하다는 점은 확실하다. 설령 그것이 영어나 영화를 비롯한 영미문화의 영향이라고 해도 셰익스피어의 유명세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셰익스피어의 인기가 작품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 나의 셰익스피어


앞에서 소개한 크로스비나 톨스토이, 오웰 외에도 셰익스피어를 비판적으로 본 사람들은 많았다. 톨스토이 이전에도 사무엘 존슨이나 바이런이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볼테르와 나폴레옹이 있었다. 톨스토이 이후에는 버나드 쇼와 윌리엄 모리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 있다. 버나드 쇼는 셰익스피어의 철학이 ‘공허하고 도덕적으로 천박하고 남루하며 사상가로서는 박약하고 비

일관적이고 속물적이며 저속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했다. 앙드레 지드가 『리어 왕』을 너무 인위적이라고 비판한 것도 톨스토이의 비판과 같은 맥락이었다. 그밖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아무리 언급해보아도 셰익스피어에 대한 찬양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뿐이다. 셰익스피어를 서양문화의 최고봉으로 여기거나 서양인들이 숭배하는 문화적 영웅들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은 지나칠 정도다.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지 침략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의 식민지 침략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지 침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모방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일본의 침략은 비판하면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침략은 대단히 문명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셰익스피어의 제국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은 그의 최후작인 『태풍』이다. 원주민인 캘리번이 괴물로 등장하여 노예처럼 부러지는 이 연극은 제국주의의 전형이다. 그런데 이 연극을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각색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식민지적 관점을 배제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태풍』 외에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제국주의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내용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령 『베니스의 상인』은 유대인에 대해, 『오텔로』는 흑인이나 아랍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드러낸다.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도 마찬가지다. 또 성차별주의나 가부장주의 같은 전통적인 반(反)민주주의도 셰익스피어의 여러 작품에 나타나있다.

사실 제국주의는 반(反)민주주의를 국제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反)민주주의가 개인 간의 자유와 평등을 부정하고 지배계급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제국주의는 나라 사이의 자유와 평등을 부정하고 강대국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영국이 제국으로 발전하지 않았더라면 셰익스피어는 영국 내 수많은 작가 중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얻은 작가 정도로 평가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초상  
[출처: 위키미디어(<http://https://ko.wikipedia.org>)]